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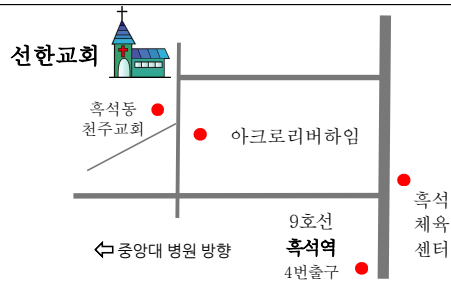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신년감사예배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4: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장 (통일찬송가9장)

교 독 문

교독문 94 (새해 2)

찬 양 과 경 배

436장 (통일찬송가 439장)

대 표 기 도

조계승 장로

말 씬 봉 독

시편 34편 8절

설 교

맛보아 알지어다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입술의 열매 (잠12:13-22)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 년 감 사 예 배

오늘은 신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2.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금요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제 직 회

오늘 제직회 안건처리는 영상으로 설명을 듣고 카톡 투표로 결정하도록 함
[예배 후 제직회 카톡방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리회 1월 17일 주일

4. 기 부 금 영 수 중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범위: 겔32장~호14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6.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7. 교육전도사 부임

1/1부로 운영 전도사님께서서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8. 2021년 달력 및 말 씬 카 드

2021년 달력과 말씀 카드가 제작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달력을 선택해 알려주시면 가정으로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전도사 개인 카톡으로 신청)
말씀 카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추어 나갑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한주간이 되기를
한해동안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가정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찬송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통 40)

본문 : 창세기 1장 31절

말씀 :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몹시 흡족해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으로 나무와 풀, 바다의 물고기, 각종 동물을 지으시며 보기에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날에는 심히 좋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시기 심히 좋은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심히 좋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기 좋음의 기준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가서는 멋지게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를 끌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이 자신의 눈에, 그리고 세상의 눈에 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심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본디 자기 자리를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돌고래는 바다에 있는 것이 보기 좋은 것이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철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보기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왜 날 자녀로 지으셨는지, 날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지를 궁금해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물읍시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의 일상, 하나님 보시기 좋은 나의 언어, 나의 생각, 그런 2021년을 꿈꾸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마감할 때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서 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해를 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 론	1.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한해 (1) (8절) ‘선하심’과 ‘맛보아 앎’의 의미: ①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 ②그 은혜를 경험으로 앎(욥42:5) (2)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 ①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4,8,9절). ②항상 기뻐하고 송축해야 한다(1-3절) ③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2절) (3)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9절) 2. 실천 사항 (1) 3가지 습관 기록 (살전5:16-18) (2) 교사 훈련 (3) 선교사의 삶	
결 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유신웅 장로

매일 Q.T.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날짜 : 1월 4일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요한일서 2:28-3:10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분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증거하셨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그는 소망 중에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성결하심을 본받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성도의 윤리적 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생의 약속과 소망을 지닌 성도들은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지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성인이나 사상가, 정치가 등으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려져야 하고 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없애 주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즉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불의와 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주도 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게 될 뿐입니다.		
묵상질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모습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찬양과 기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새 453)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인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소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던 한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에게 통명스럽게 말합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오시나요? 저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형제는 젊고 집사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집사님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언변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꾸준히 찾아와 따뜻한 마음으로 재소자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몇 주 동안 집사님을 만나도 별로 말이 없던 형제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를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랜 시간 함께 있어 준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하는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은 활짝 열립니다. 누군가 내게 베푸는 진실한 사랑에 위로받고 회복된 경험이 있나요?
말씀 나누기	요한일서 3:11~24
묵상포인트	형제 사랑의 방법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세상은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미움 받으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는 항상 생명의 자리에 머물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요?(14~18절)
적용하기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한 지체는 누구인가요? 그가 내게 원하는 진실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기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동행을 일평생 이어 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날짜 : 1월 8일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요한일서 5:1-12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으며,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주신 계명들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할 때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지켜 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손과 발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벅찬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특별한 범주로 취급하기를 거부합니다만 성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며 승리의 근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상이나 풍속, 시류 등과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묵상질문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의와 계명을 지키라	날짜 : 1월 5일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요한일서 3:11-24		
	사도 요한은 세상의 속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라는 것이며 그 미움의 대상은 곧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때 의아해 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그 마음에 같은 방법으로 대항치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며, 하늘에 상급을 쌓아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가 진리에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한 성도들은 그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믿는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이나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인격적이며 윤리적인 교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에서 얻어진 확신이 참된 신앙 확신입니다. 요한은 진리대로 행하는 성도들은 가책받을 것이 없다고 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준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참조, 요13:34-35).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묵상질문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위해 치러야 했던 댓가가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영을 분별하라	날짜 : 1월 6일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요한일서 4:1-12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과 반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영은 곧 사단의 영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배반한 영으로서 비난받는 존재이고, 반역자의 괴수이며 무자비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한 후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자라는 이단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부인합니다. 지구상에는 각양 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신분을 가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속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며, 미혹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거짓을 버리고 참된 복음을 수용합니다.		
묵상질문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날짜 : 1월 7일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요한일서 4:13-21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윤리의 근간이므로 언제나 성도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평화와 자유와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며, 서로 미워할 때 분쟁과 파멸과 저주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의 계명 아래 있는 성도들은 이 명령을 충실히 따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철두철미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사랑하기 위해 내가 했던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